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 5.(화) 16:00 ~ 18:10
- 장 소 : 비대면 회의
- 참 석
 - 외부위원 : 박익수 위원, 오영상 위원, 박성원 위원
 - 교직원위원 : 정효지 학생처장, 강준호 기획처장, 김용철 재정전략실장
 - 학생위원 : 김지은 202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하규원 대학행정자치 연구위원회 위원, 반주리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

2. 회의 내용

- 안건 심의
 -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회의 내용

< 위원장 개회 선언 >

- 전차 회의록 관련

< 간사, 전차 회의록 낭독 >

- 위원장 : 회의록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회의록을 접수하기로 함 >

○ 학생 측 요구(안) 및 학생위원측 요구자료 관련

- 학생대표 : 혹시 학생 측 요구(안)을 회의 전에 확인하셨는지 궁금함.
- 학교대표 : 학생 측 요구(안)이 회의 전 매우 촉박하게 도착하였던 관계로 교직원 위원들에게 회의 자료가 공유 되지 않았음. 공유 화면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학생대표 : 코로나19 전후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2019년도 12월 말 기준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함.
- 학교대표 : 2019년도 단과대학별 운영비 평균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2020년도 이와 유사한 추세가 예상됨.
- 학생대표 : 2020.12.30.자 기준 단과대학별 평균 집행률은 회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치보다 저조한데, 예산 집행 추세로만 보았을 때 미집행 잔액 재원을 활용하여 등록금 인하(안) 2.3%를 제안하게 되었음.
- 학생대표 : 전입금 감소 관련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함.
- 학교대표 : 추가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청하는 것인지?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와 다른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학생대표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30주년 기념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기금의 규모는 약 5,600억원이며, 기본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대학교로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 발전기금 전입금 자료와는 상충되므로 부연 설명을 요청함.
- 간 사 : 발전기금 재단 연간 순세입액 중 기부 목적을 지정한 지정기부금 형태가 대부분임. 특히 지정 기부금은 기부자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범위를 제한하였기에 발전기금 자체에서 본부로 직접 편성해주는 재량목적사업비나 법인회계로 전입해주는 발전기금 전입금 형태로는 사용하기 어려움.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본교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 금리 인하 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용재원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발전기금 지원금(재량목적사업비 및 발전기금 전입금)의 총합계 규모가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위 원 장 :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다면 발전기금 가용 재원이 증가할 수도 있는지?
- 학교위원 : 학교 측에서도 발전기금 가용 재원이 증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위 원 장 : 학부 입학금은 폐지되었으나 대학원 입학금이 존재하는 사유는?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교 측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학원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만일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국·공립대학은 2018년도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부생 입학금을 폐지하였고, 사립대학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임. 반면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함. 2021 학년도에도 수업료를 동결할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관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음.
- 학생대표 :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 원 장 : 학교 측에서 준비한 자료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간 사 : 코로나19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료 증가에 따른 수입을 교내 장학금으로 편성하여 보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난 1차 회의에서 언급하였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등록금 인상을 통한 수입증가분을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하였음.
- 학생대표 : 학교 측에서는 재분배를 통해 보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인상(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학생 설문조사결과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학생위원측에서도 통계청 가구당 가계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2020년 2분기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전년대비 근로소득은 소득 분위기를 가리지 않고 감소한 점을 확인하였고, 3분기 이후 자료를 통하여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 증가나 감소의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음.(1~2분위 근로소득 전년대비 감소, 3~4분위 근로소득 전년대비 증가, 5분위 근로소득 전년대비 감소)

- 외부위원 : 양측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함. 학생 측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통해 2020년도 2분기에는 소득분위가 높은 가계에서도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여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면 공평하지 않다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큰 틀의 관점에서는 학교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은 가계수지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분을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재분배는 적절해보임.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
- 학생대표 :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학교대표 :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선도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용을 내고 소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제안하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 줄 수 있는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임.
- 학생대표 : 1차 회의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안)을 유지하시는지?
- 학교대표 : 학교 측 의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안) 제시를 통해 말씀 드렸음.
- 학생대표 :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개별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인상분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기부금과는 다르다고 봄.

- 학교대표 :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등록금 인상(안)은 실질적 의미에서 동결임. 특히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장학금으로 편성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는 것이 취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대표 : 동결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인하라고 하셨는데 학생 측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배움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결은 더욱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대표 : 학생들의 어려움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안)을 제시했던 이유는 소득분위별로 학생들 간 양극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선한 취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제안을 드린 것임.
- 학생대표 : 학생 측 성명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등록금 인상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특히 저소득 학생들의 경우, 이미 국가장학금II 유형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 원 장 :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2차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 학교대표 : 향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의 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을 의결하기로 함.
 - 3차 회의 일시 : 2021년 1월 7일(목) 16:00
-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부터는 아래 자료들을 회의 전에 학생위원회에게 제공하기로 함

-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의 법인회계 전입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 세입·세출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개된 자료

< 폐회: 18:10 >

2021. 1. 5.

위 원 장 : 박 익 수 (서명)

학교대표 : 강 준 호 (서명)

학생대표 : 김 지 은 (서명)